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3월 한 달을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 정독 100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위/ 사무엘하 5장 - 열왕기상 8장).
- 오늘은 3040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들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 오는 29일 (토)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네팔 공동체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 공동체 학습 방법 성경공부가 3월 첫 주일(2일)부터 있습니다 (신청서 본당 입구).
과목/ 풍성한 생명 (화/이성훈)
신앙의 토대 (월/이태한, 목/이성철)
시간/ 오후 7시 30분
- 공동체별 사진 촬영을 못한 공동체들은 오늘 촬영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 바랍니다.
- 금요일 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 6시 50분부터).
- 밀알 장애우를 섬겨준 성도들 수고하셨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3월 교회사역일지
3월 1일(주일) 사순절
3월 11일(수) 연합 찬양 예배
3월 25일(수) 1 남여선교회 주관 예배
3월 29일(주일) 성찬 주일

3월 기도순서
3월 1일 (주일) 김철재 집사
3월 4일 (수) 김은희 집사
3월 8일 (주일) 박덕철 장로
3월 11일 (수) 김자경 권사

3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박해정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08호 2020.02.23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일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 도 김효설 자매
다음 주 일 흥예진 자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95:1-3	인도자
✧찬 송	----- 35장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 273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제용 장로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9:1-10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내가영으로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한 중년의 고민	이태한 목사
찬 송	-----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김영옥 권사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20:19-31
설 교		부활의 주님
		이성훈 목사
찬 송		216장
주 기 도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모두 아무 일 없고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여러 여행 / 1월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오uckland에서 한 달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멜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 취소 소식을 들었고 다음 날 비행기를 선택하라는 데 평소 3시간 반 걸리는 비행기 대신 12시간, 9시간 걸리는 비행기들만 추가 요금 없이 선택하게 해서 결국 표를 취소하고 새 비행기 표를 급하게 샀습니다. 해당 항공사 카운터가 닫히기 5분 전에 표를 구하고 express로 빨리 입국장을 들어가 탑승 게이트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멜번으로 돌아와서 사흘 후에 터키로 갔습니다. 또 한 번 20시간이 넘는 비행이라 역시 피곤했습니다.

컨퍼런스는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고 다양한 만남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사역을 하시는 P 선교사님과 함께 약 두 시간 정도 깊이 기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했고, 영어로 부담 없이 충분히 깊게 기도해서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시 63:7). 시편에서는 주로 주의 날개 그늘에서 ‘피한다, 숨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숨거나 피한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가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쳐있고, 힘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피하고 숨는 장소만이 아니라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영적으로도 힘이 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던 장소로서의 이미지 대신 힘 있고 즐거운 이미지가 이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높이고 싶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현재의 어려움을 파하고 나가는 힘도 이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함으로써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 공항과 사람 많은 곳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주님 안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 교회의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도록.
3. 병고에 시달리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나눔란

2020년 2월 1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서 1:1~2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 서로 경계하며 혐오하는 모습이 온 세계에 만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1:1) 우리의 정체성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성도란 구별되고 거룩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별되고 택함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직분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가 성도라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직분은 끝나는 날이 있으나 성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를 성자나 성인군자라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도는 도덕적 성인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십자가 은혜로 거룩히 여겨 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의 안전과 욕심만을 따라 살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그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변화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는(행 11:26) 큰 흉년이 들자 자기도 어렵지만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냈습니다(11:29)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성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연합입니다(롬 6:3-5)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풍요롭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문화와 전략적 중심지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당부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있는 성도임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이방 문화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두려움, 욕심,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누가복음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